

광주지법 “신입생 모집 내신 상위 30% 제한은 위법” 결정

## 자사고 ‘학생 선발권 위축’ 당혹

선례 남아 내년 유사소송 우려 파장 촉각

법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석차 백분율 30% 이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려 광주·전남지역 자사고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학생이 입학 원서를 내지 않아 현행 선발방식은 유지하게 됐지만, 이 선례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유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5일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의 부모가 학교법인 보문학숙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협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적 30% 이내 학생에게만 입학자격을 주는 것은 학법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김군은 보문고와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의 자사고들이 상위 50% 학생들에 대해 지원 자격을 주는 반면, 지방의 자사고는 30%로 제한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제한으로 판단했다.

졸업예정자 석차백분율 42.8%인 이 학생은 보문고에 원서를 낼 자격을 갖게 됐으나, 원서 마감일인 이날 접수를 포기했다.

이 학생의 학부모는 성적과 신원이 공개돼 비록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입학하더라도 학교에 다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보문고와 송원고, 승덕고, 광양제철고 등 광주·전남지역 4개 자사고는 크게 당황하고 있다.

해당학교와 광주시 교육청도 큰 혼란을 겪었다. 보문고는 ‘입학 전형에 차질을 빚지 않느냐’는 학부모들의 전화에 곤욕을 치렀다. 광주 송원고와 승덕고, 전남의 광양제철고 등도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광주시 교육청은 일단 교과부에 이번 결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놓

은 상태다. 그러나 교과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자사고의 성적제한 범위를 하향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자사고가 교과부에 석차백분율 상위 20% 이내 학생선발을 요구한 바 있어 또다시 선발기준을 낮춘다면 자사고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과부에 법원 결정문을 전달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로,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사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최경호 기자 penfoot@



칫솔질은 위로 아래로

25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열린 ‘어린이 구강체험학습’에서 유치원생들이 올바르게 칫솔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일부 자사고 정원 못채웠다

평균 경쟁률 1.32대 1

광주시 교육청은 25일 광주지역 3개 자율형 사립고가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 1.32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일하게 신입생을 모집했던 송원고 경쟁률(1.63대 1)보다 낮은 것으로 올해 승덕·보문고 2개교가 새로 학생모집에 나섰지만 학생들의 선호를 이끌어 내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 2011학년도 광주 자사고 원서접수 현황 (일반전형)			
학교	모집인원	지원인원	경쟁률
송원고	남 140	126	0.9:1
	여 84	110	1.3:1
승덕고	남 152	258	1.7:1
	여 91	319	3.5:1
보문고	남 112	38	0.34:1
	여 112	59	0.53:1

자료 : 광주시 교육청

기록했다.

보문고는 남·여 학생 각각 112명 정원에 각각 38명과 59명이 지원해 0.34대 1, 0.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고교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9일 까지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송원고는 남학생 140명 정원에 126명이 지원해 경쟁률 0.9대 1에 그친 반면, 84명을 뽑은 여학생의 경우 110명이 지원해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고입특례자 전형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승덕고의 경우 남학생 152명 정원에 258명이 지원해 1.7대 1, 여학생은 91명 정원에 319명이 지원해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가 유공자 전형(0.89대 1)을 제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1.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목포 여대생 피살 열흘… 단서 못찾아

## 목격자 제보만 기다리는 경찰

‘목포 여대생 피살 사건’(본보 10월 18일자 6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뿐만 아니라 목격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목포경찰은 지난 16일 목포시 상동에서 여대생 조모(22)씨가 살해된 직후 관할 출신소에 수사부분을 꾸린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용의자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특히 당직팀을 제외한 형사과 직원 40여명을 투입해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사건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목격자나 이っぽ다 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4건의 제보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수사가 답보 상

태에 빠졌다.

다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조씨가 누군가에 의해 목에 쥐려 살해됐으며, 얼굴에 폭행 당한 흔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누군가 조씨의 금품을 노려 폭행한 뒤 살해했거나,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 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직접적인 범행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공원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는 시민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전남경찰 소속 여성 자살

25일 오전 7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 한 주택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여·35) 경장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경장이) 최근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한 달간 병가를 내고 사직도 고려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남의 밭에서 ‘박’ 훔쳐 간 노인들

○…남의 밭에 들어가 ‘박’을 훔친 사람들은 특수 절도 혐의로 경찰서행.

○…25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장모(77)씨 등 3명은 지난 20일 오후 5시께 광주시 남구 월성동 김모(61) 씨의 밭에서 개당 1만원 상당의 박 5개를 따서 가져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선우배 사이인 장씨 등은 이날 남구 승촌동 영산강 인근에서 우렁이를 잡은 뒤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면 중 우연히 김씨의 밭에서 박을 발견하고 훔쳐 달아났는데, 경찰에서 “박이 너무 탑스럽게 생겨서 요리를 해먹으려고 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광주댐 원앙 잇단 떼죽음 미스터리

18일 19마리·24일 20마리 폐사… 독극물 중독 가능성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이 광주댐 인근 하천에서 또다시 집단 폐사했다. 지난 18일 이후 두 번째다. 당국이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는 사이 폐사한 원앙이 또 발견되자 추가 폐사 우려가 나오는 등 천연기념물 관리실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오후 7시께 담양군 고

서면 성월리 광주댐 수문에서 직선거리로 100~150m 떨어진 깊이 50cm의 정유천에서 원앙 20마리가 죽어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원앙 20마리 중 4~5마리는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발견된 장소는 수초가 거의 없는 하천이었다. 지난 18일에도 이곳으로부

터 5~10m 떨어진 곳에서 원앙 19마리가 죽은 체 발견됐었다.

한국 앙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광주지부 등 전문가들은 원앙이 독극물이 섞인 범씨를 먹고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된 곳에서 5~10m 떨어진 곳에 녹이 있는 데다, 1차 부검 결과 일부 원앙의 뱃속에서 범씨가 나왔기 때문이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www.geumssojang.com

내집같은 편안함!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객실요금  
4 만원  
부터

부담 없습니다.  
4-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거리, 총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 Free Wifi, 비즈니스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  
등 다양한 부대시설

한밤 한밤 짹짜매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의 주요 고객



대학편입 마무리  
실전트레이닝!

김영만의 탄탄한 합격시나리오 11월 1일 대개강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 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